

‘글로벌·새 먹거리’ 두토끼 잡자... 게임업계 ‘합종연횡’

필어비스, CCP게임즈 인수 확정
블루홀, 딜루전스튜디오 인수키로



필어비스 CCP게임즈 인수 관련 CI.

/필어비스

스마트폰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게임업체 필어비스는 ‘이브 온라인’을 개발한 아이슬란드 게임업체 CCP게임즈의 인수를 결정했다. 양사는 독립적인 스튜디오로 운영하되 시너지를 위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힐마르 베이거 페터슨 CCP게임즈 대표는 “필어비스를 접하고 빠른 성장과 잠재력에 놀라움을 느껴 검은사막의 팬이 됐다”고 말했다.

게임업체들이 인수합병(M&A)에 힘을 싣고 있다. 대형 게임사의 M&A는 흔한 일이었지만 M&A 주체가 중소기업사까지 확장된 것은 최근에 두드러지는 추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개발

사 블루홀은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불멸의 전사’와 ‘불멸의전사2’ 등으로 알려진 게임 개발사인 레드사하라스스튜디오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딜루전스튜디오 인수 계획을 밝혔다.

딜루전스튜디오는 모바일게임 ‘가디언 스톤’과 ‘캐슬번’으로 알려진 게임 개발사다.

앞서 CCP게임즈의 인수를 결정한 필어비스는 지난 6월 자회사 ‘필어비스캐피

탈’을 설립하며 투자처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김경엽 전 에이티넵인베스트먼트 이사를 투자총괄로 영입하기도 했다.

두 게임사의 공통점은 최근 흥행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필어비스의 검은사막은 전세계 누적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150여 개 국가에서 12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블루홀은 ‘배틀그라운드’의 인기로 힘입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6665억원, 영업이익 251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블루홀의 전체 매출 대부분은 배틀그라운드의 서비스를 맡고 있는 자회사인 펍지에서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잘 만든 게임을 확보했지만 추후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M&A를 통해 기반을 다지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식재산권(IP) 확보도 M&A 가속화 이유 중 하나다. CCP게임즈의 이브 온라인은 15년 간 서비스를 이어온 온라인 게임으로 충성도가 높은 이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모바일게임으로 출시되면 중국과 북미·유럽 지역의 흥행을 기대할 수 있다.

차세대 기술력과 신사업을 위한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 게임에는 인공지능(AI) 뿐 아니라 블록체인 등 기술이 융합되고 각종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결합되고 있다. e스포츠 사업의 성장으로 ‘보는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도 늘었다.

트위치 등에서 활약하는 게임 전문 크리에이터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넷플은 이 같은 e스포츠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샌드박스네트워킹과 공동 컴퍼니에 총 205억원의 지분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구단 운영, 게임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e스포츠·게임 콘텐츠 사업, 리그 개최 등 다양한 e스포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해 ‘보는 게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형 게임사의 경우 일찌감치 신사업을 겨냥한 M&A에 집중하고 있다.

넥슨은 연결자회사인 엔미디어플랫폼을 통해 PC방 운영 솔루션 기업을 인수했으며, 넷마블은 카툰 벤처 스튜디오, 잼 시티 등 북미 게임 개발사를 인수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미국 음악 게임 전문사인 하모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하모닉스의 음악 게임을 퍼블리싱하기로 한 상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韓, 단기차입 줄고... 해외 빚보다 자산 많아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 구조변화

외화예수금 10년만에 3배로 증가
거주자 외화대출 3분의1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해외에 빚보다 자산이 많은 대외 순채권국으로 바뀌었다. 단기외화차입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채무 건전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반대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금융사가 투자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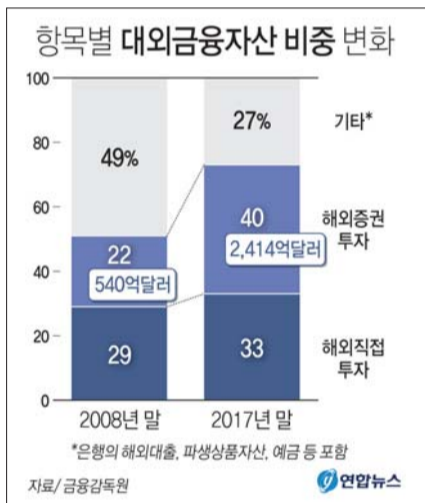
11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외환부문의 구조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1조4537억 달러, 대외금융부채는 1조2054억 달러다.

금융회사의 해외증권투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지난 2014년 이후 해외에 빚보다 자산이 많은 대외 순채권국으로 전환했다.

금융회사의 해외증권투자 잔액은 2008년 말 540억 달러에서 2017년 말 2414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자산운용·보험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증권투자를 확대했다.

특히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세제혜택 등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2014년 이후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급증했다.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 중 해외증권에 대한 투자비중은 2008년 말 22%에서



2017년 말 40%로 높아졌다.

외국인의 투자자금도 국내로 순수입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순수입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772억 달러다. 주식과 채권이 각각 894억 달러, 878억 달러다.

외국인의 투자금은 2009~2017년 중 경상수지 흑자와 함께 국내 외화유동성의 주요 공급원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대외금융부채 중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비중은 2008년 말 42%에서 2017년 말 64%로 높아졌다.

외화조달 측면에서는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단기 외화차입이 크게 감소했다.

국내은행의 외화예수금은 2008년 말 404억 달러에서 2017년 말 1257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유입된 외화를 국내기업 등이 외화 예금으로 예치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외화조달 중 외화예수금 비중은 2008년 말 19%에서 2017년 말 41%로 상승한 반면 외화차입 비중은 2008년 말 64%에서 2017년 말 42%로 하락했다.

국내은행의 단기외화차입은 2008년 말 719억 달러에서 2017년 말 302억 달러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외화차입 중 단기차입비중은 2008년 말 53%에서 2017년 말 23%로 낮아졌다.

외화운용 측면에서는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대출 등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이 크게 늘었다.

국내은행의 거주자 외화대출은 2008년 말 546억 달러에서 2017년 말 197억 달러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2010년 외화대출 용도를 해외사용 목적으로 제한한 영향이 컸다.

반면 비거주자 외화대출은 2008년 말 403억 달러에서 2017년 말 922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대외건전성은 개선됐지만 투자손실이나 투자금 유출 위험은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확대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금융회사의 해외투자증권 손실 발생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 위험은 증가했다”며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리스크 분석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전기톱 든 ‘몸짱 소방관’

11일 오후 충주종합운동장 무대에서 열린 제5회 몸짱 소방관 경연대회에서 전북 정읍소방서 김정훈 소방교가 전기톱을 들고 육체미를 뽐내고 있다. 이날 대회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2018 세계소방관경기대회와 함께 열렸다. /연합뉴스

보험사 흡쇼핑·TV광고 ‘깨알글씨’ 키운다

금융위, 핵심내용 글자크기 확대 등
소비자 보호 초점 맞춘 개선안 발표

보험상품을 파는 흡쇼핑이나 1분이 넘는 긴 TV 광고(인포머셜: 정보 제공성 광고)에서 주요 내용을 광고 마지막에 작은 글씨와 빠른 음성으로 읽어내려가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광고에서 보험가입의 핵심내용의 글자크기 확대, 보험금지급제한사유를 본 방송에 편입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의 초점을 맞춘 보험광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위가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영업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는데 따른 것이다.

당초 보험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불만이 이어져왔다. 특히 흡쇼핑 등 TV광고가 가입 중요사항을 방송말미에 작은 글씨를 빠르게 내보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또 상담시 ‘고가의 경험’을 무료로 준다고 광고하지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사은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토록하는 유인책이었다.

실제로 흡쇼핑 및 TM채널의 불완전 판매비율이 다른 채널대비 두드러진다. 2017년말 기준 법인대리점 중 흡쇼핑과 TM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33으로, 개인대리점(0.06), 보험회사 설계사(0.19) 등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수치가 현저히 높았다. 이에 당국은 보험소비자가 방송시 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상세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했다.

이로 인해 본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청약철회·품질보증제지 안 내,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내용·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안내 등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확대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도 고지되는 내용도 별도 색으로 표시한다.

또 본 방송중 경품 안내시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 충족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한다.

아울러 보험금지급제한사유는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본방송에서 언급하는 보장내용인 지급제한사유는 동등하게 본방송에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C DR척도’ 등 어려운 의학용어는 ‘임상치매평가(CDR) 척도’ 등으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순수보장성 보험’과 같은 어려운 보험용어도 ‘만기시 환급금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설명하게 한다.

당국은 오는 10월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임대료 절반 ‘사회적 주택’ 수도권 공급

국토부-LH, 서울 68·경기 41가구
대학생 등 만 19~39세 청년 대상

대학생 등 청년이 주면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 109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이날부터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통해 서울 7개동 68가구, 경기 5개동 41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사회적 경제주체가 담당한다.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사회적 주택’의 추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인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신화 기자 csh9101@